

# Study of Mongolian Traditional Children's Song

Park, So-Hyun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is a survey of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It is based on data survey and collection over a period of six months as well as an 8-day spot survey in Mongolia. The original spot survey in Mongolia was scheduled to be carried out in Ulaanbaatar, the capital of Mongolia, for 10 days from May 14-24, 2009. However, due to the airplane schedule, the actually survey period was 8 days.

The origins of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coincides with the appearance of the term called *xuxdin duu*, which means 'children's song,' during the beginnings of socialism in the 1940s. Traditionally, Mongolia's children's songs had been included in the category of adults songs without distinction as 'traditional children's song' or 'children's song.' 'Children's songs' were created as a separate category as part of educational developments in schools. Before this educational provision, distinct traditional children's song or children's song in Mongolia did not exist primarily due to the nomadic lifestyles of the people. Mongolian people make a living while

moving the family unit from place to place. Thus, there are songs that adults sing for children or that became children's songs naturally due to exposure to the adults' songs. However, those are not officially categorized as children's songs.

This examination of the birth of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has led to a conclusion that the songs are based on a combination of folk song and epic song styles in Mongolia.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which were collected through the spot survey, totaled approximately 36 pieces.

Musical analysis of the 36 pieces reveals a mainstream rhythm consisting of two-four time, three-four time, and four-four time. Two of the 36 pieces are in three-eight time and six-eight time. The musical scale is a pentatonic scale. It is typical for the musical range not to exceed an octave and a half.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can be characterized as usually short, neat, fluent, formal, easy to know, and easy to memorize.

Give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Mongoli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we can see that they are not greatly different from Korea'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These songs are, as well, most likely quite similar to traditional children's song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 terms of methodology, some doubt the validity of the spot survey in researching foreign music. But, such surveys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s' have helped us gain a general view of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se types of surveys are helpful in learning about musical classifications, structures, and concepts and comparing thes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s elsewhere.

# 몽골전래동요 연구

박소현(음악학 박사, 영남대학교 교수)

## 1. 서론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에서 요청받아 2009년 1월부터 수행된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몽골의 전래동요에 대한 개황과 분류, 음원, 악보와 함께 몽골의 대표민요까지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몽골에는 전래동요가 없다. 여기서 몽골에 전래동요가 없다는 의미는 몽골 전통 성악곡에서 전래동요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0여 년간 몽골음악에 관한 연구를 해왔지만 ‘몽골전래동요’란 단어는 몽골 학자들 혹은 현지조사 중에 만난 몽골인들 사이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조사를 위하여 먼저 ‘몽골전래동요’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수집한 몽골음악관련 개천서와 사전 그리고 『몽골 구비문학』<sup>1</sup>에서 ‘몽골전래동요’에 대한 내용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몽골 구비문학』의 내용 중 ‘아동구비문학(Хүүхдийн Аман Зохиол)’이란 구분에 ‘자장가(무행 도: Бүүвэйн дуу)’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장가’는 동요로 구분하는데 이견(異見)들이 있다.

따라서 ‘몽골전래동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또한 현지조사를 착

<sup>1</sup> X. Сампилдэндэв, Ш. Гаадамба, *Монгол Амгн Зохиол*, Улаанбаатар: Могол улс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2006 (해. 삼필덴데브, 쉬. 가담바, 『몽골 구비문학』 출판바타르: 몽골 사회과학 아카데미 어문학 연구소, 2006).

수하기 전, 사진 정보를 수집하여야만 한다. 단기간의 현지조사는 많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3개월간 ‘몽골전래동요’에 대한 개념 정리를 위해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내몽골에서의 ‘몽골전래동요’에 관한 연구를 수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몽골전래동요’란 단어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몽고족아동문학개론』<sup>2</sup>에서 몽골 동요에 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 몽골 현지 조사에 대한 과정을 보고하고, ② 몽골전래동요와 창작동요의 역사를 고찰, ③ 몽골전래동요의 분류와 종류를 정리, ④ 몽골전래동요의 음악적 특징을 논거하려 한다.

## 2. 현지조사

몽골전래동요의 현지조사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 14일-24일, 10일간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로 향하였다. 5월 14일에 출발하였지만 몽골 항공일정은 저녁 8시에 출발하고 귀국 행은 자정이기 때문에 실제 현지조사 일정은 8일간이었다.

5월 15일 금요일, 본인의 몽골 지도교수이자 몽골의 음악학자 세. 엔비취(Ж. Э. нэбиш) 교수를 만났다. 엔비취 교수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각각 출판된 3권3의 몽골동요 창작곡집을 찾아 몽골 동요의 역사와 특징을 읽으려 했고, 몽골동요와 관련된 주요 인물 3명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몽골 최고의 작곡가 데. 림승샤랍(Д. Лувсаншарав), 몽골 동요 가수로 유명한 웨. 돌거르(В. Долгор), 몽골 어린이중전(Монголын Хүүхдийн Ордон: 몽골령 후호딩 어르 등)의 함강지도 교사이자 동요 작곡가 세. 간치맥(С. Ганчимэг) 등이다.

그날 오후, 엔비취 교수댁을 뒤로하고 서점으로 향했다. 몽골은 3년 전만 해도 서점을 찾기 어려웠다. 주로 시장 혹은 대학가 길목 가판대에서 책을 파는 노점

<sup>2</sup> 哈斯巴拉特, 『蒙古族儿童文学概论』(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2).

<sup>3</sup> Монголын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Холбоо, *Мөнгөн Хонхны Дуу*,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75 (몽골음악 작곡가 협회, 『은중(銀鐘)의 노래』(울란바타르: 국가출판사, 1975).

Б. Цогтоо · Г. Бирваа, *Мөнгөн Хонхны Дуу II*,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81 (베. 초거 · 게. 비르와아 정리, 『은중(銀鐘)의 노래 II』(울란바타르: 국가출판사, 1981).

Монголын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Эвлэл, *Мөнгөн Хонхны Дуу III*,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86 (몽골음악 작곡가 연맹, 『은중(銀鐘)의 노래 III』(울란바타르: 국가출판사, 1986).

상판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나름 대형 서점이 몇 군데 생겨 신간 서적을 손에 넣기가 용이해 졌다. 엔비쉬 교수가 말한 책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에 갔지만, 워낙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라 구하지 못했다. 다만 몽골 초·중등 음악교과서를 구입하고, 몇 가지 신간 동요집을 구입했다.

5월 16일 토요일, 몽골문화예술대학교 민족음악대학 교수인 일. 어은치메(Г. Оюучимэг)을 만났다. 몽골진래동요에 대한 질문을 하니, “몽골에는 진래동요란 말은 없고, 몽골 혁명 이후 창작된 동요만 있다”고 했다. 그리고 “네가 찾아서 새로 정리해야겠구나!”라는 격려의 말뿐이었다. 마침 학교에서는 졸업연주회가 있어 어은치메 교수와 졸업연주를 관람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점심때가 되어 몽골의 마두금(馬頭琴)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현재 울란바타르 문화예술청장을 맡고 있는 체. 푸렘후(Ц. Пүрэвхүү)의 가족을 만났다. 푸렘후의 가족은 모두 몽골 전통음악을 한다. 이들에게 몽골 민요 200여 곡이 수록된 『몽골의 민요』<sup>4</sup>란 책을 가지고 가서 아동들도 부르는 민요를 선별해 달라고 했다. 이들이 표시해 준 곡은 약 30여 곡이었다. 그리고 몽골에서 대표적인 민요를 물었다.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아리랑> 혹은 <도라지>을 대표 민요로 이야기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모국의 민요 중 대표 민요를 말하라고 하면 10여 곡 이상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민요를 부탁했다. 그것은 <보름달(아르왕 타브니 사르, Арван Тавны Сар)>과 <어머니의 은혜(에헝 에츠, Эхийн Ач)> 두 곡이다. 이 두 곡의 민요는 몽골 사람들이 축제 혹은 뜻 깊은 행사 때 많이 부른다. 이 곡은 다음 악보와 같다.

<sup>4</sup> Т. Гун-Лажав · Р. Оюулбат · Ц. Навчав, *Монгол Аардэлн Дуу*, Улаанбаатар, 2003 (테. 곤-아아짜브 · 패. 어은바드 · 체. 남차야, 『몽골 민요』, 울란바타르, 2003).

<악보 1> 보름달(Арван Тавны Сар)<sup>5</sup>



몽골의 대표 민요 <보름달>의 노랫말은 사랑하는 아이를 밝은 달에 비유하여 찬사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Арван тавны маань сар нь хө, ай хө  
Агаар тэнгэртээ дэнлүү дээ, ай хө  
Арванхан тавтай Шоожуу нь хө, ай хө  
Аав (аа) зөхий дээ дэнлүү дээ, ай хө

보름달은 허, 아이 허  
허공에게 등불이지, 아이 허  
열다섯 살의 쇼쥬<sup>6</sup>는 허, 아이 허  
아빠(아아) 엄마에게 등불이지,  
아이 허

Хоринхон тавны маань сар нь хө, ай хө  
Хорвоо ертөнцдөө дэнлүү дээ, ай хө  
Хоринхон тавтай Шоожуу нь хө, ай хө  
Хоёр биендээ дэнлүү дээ, ай хө

스물다섯 날의 달은 허, 아이 허  
세상에게 등불이지, 아이 허  
스물다섯 살의 쇼쥬는 허, 아이 허  
두 사람에게[나의] 등불이지, 아  
이 허

Шяний н нэгний маань сар нь хө, ай хө  
Шял дээр очоод шингэнэ дээ, ай хө  
Шинэхэн ханилсан цамтай гаа хө, ай хө

설날의 달은 허, 아이 허  
산 넘어 진다네 아아 허  
새 식구로 맞은[시집 온] 너와  
허, 아이 허

Сэтгэлий нхээ үгий г ярилцъя даа, ай хө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자구나, 아  
이 허

<sup>5</sup> Т. Гун-Аажав · Р. Оюулбат · Ц. Навчаа(2003), 창계시, 18쪽.

<sup>6</sup> 어란아이의 이름.

다음 <악보 2>는 <어머니의 은혜>이다.

<악보 2> 어머니 은혜(Эхийн Ач)<sup>7</sup>



몽골의 대표 민요 <어머니 은혜>의 노랫말은 어머니의 은혜를 동·식물과 자연에 비유하여 묘사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Бөмбөр бөмбөр модондоо  
 Бүргэд шувуу бөөрнө дөө хө  
 Бөөрөнхий биений г минь өсгөсөн  
 Ээжийнхээ ачийг яанам бэ хө

빔버르 빔버르 나무에는  
 독수리가 운다네 허  
 둥근 몸을 키우신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 허

Саглагар саглагар модондоо  
 Шаазгай шувуу шагширна даа хө  
 Сайхан биенийг минь өсгөсөл  
 Ээжийнхээ ачийг яанам бэ хө

가지가 무성한 나무에는  
 까치가 운다네 허  
 좋은 몸을 키우신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 허

Хар хадны маань өвөрт (өө)  
 Халиун лянхуа цэцэг байна аа хө  
 Харанхуй шөнөөр босож хөхүүлсэн  
 Ээжийнхээ ачийг яанам бэ хө

검은 바위 앞에는 (어)  
 연꽃이 있다네 허  
 짙짙한 밤에 채우고 젖을 먹인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 허

Цагаан хадны маань өвөрт (өө)  
 Цагаан лянхуа цэцэг байна аа хө  
 Цагаан сүүтээ пимүүлж өсгөсөл  
 Ээжийнхээ ачийг яанам бэ хө

흰색 바위 앞에는 (어)  
 흰색 연꽃이 있다네 허  
 하얀 모유를 먹이고 키우신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 허

<sup>7</sup> Т. Гун-Аажав · Р. Оюунбат · Ц. Навчаа(2003), *Сягесе*, 193зү.

5월 17일 일요일, 조사할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급히 진행하고 싶었지만, 이틀 동안 찾은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좀 더 숙지하고, 현지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주말 내내 자료 정리와 월요일부터 면담할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약속을 청했다.

5월 18일 월요일, 몽골 어린이궁전(Моголын Хүүхдийн Ордон)의 합창지도 교사 새, 간치백 선생을 만났다. 그는 동요 작곡가이자 몽골 전통악기인 여창(揚琴, ёчин)<sup>8</sup>과 피아노에 능숙하다. 국립몽골문화예술대학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졸업 후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현재 몽골 어린이궁전의 합창지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몽골 어린이궁전은 예술영재교육을 위해 1958년 국립몽골문화예술대학교 옆에 설치되어 만 4-13세 아동들이 예술분야인 음악, 미술, 무용 등을 학습하는 곳이다. 음악분야에는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몽골 어린이궁전은 1985년 미술 분야만 두고 교사를 이전하여, 국가중앙도서관 인근에 음악분야만 분리 운영 중이다. 현재 합창반은 15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몽골 어린이궁전의 합창반은 주로 몽골동요와 울동을 학습한다. 동요에는 몽골 민요도 포함되어 있다. 특별한 교재는 없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학습한다. 연령별로 만 4-5세와 만 6세 이상의 두 반으로 분반한다. 이들은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합창지도를 받는다. 몽골 어린이궁전 출신 중에는 어유마(Оюумаа)라는 국가공훈지정을 받은 민요가수가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 중 일부는 영화배우로 활약 중이기도 하다.

몽골 어린이궁전의 합창반 아동들은 각종 세계동요대회에서 입상한바 있으며, 가장 최근 수상은 2008년 6월 러시아 동요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했다. 또한 2006년 합창반 아동들 중 4명의 남자아동을 선발하여 'Good Boys'라는 중창단을 결성하여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이며, 일본인에 의해 음반 제작 중인데 8월에 출시예정이다.

간치백 선생은 자택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날 전래동요(몽골민요 중 아동들이 부르는 곡)와 창작동요 음반을 전해 주기로 하였다.

5월 19일 화요일, 몽골 어린이궁전 간치백 선생의 합창반에 갔다. 합창반 아동들이 모였을 때, 몽골동요의 실연을 조사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간치백 선생은 'Good Boys'를 소개하고 싶어하기에, 일단 그들의 노래를 먼저 들었다. 'Good

<sup>8</sup> 한국의 양금과 유사한 몽골의 전통악기.



〈표 1〉 몽골 어린이 공전 합창반에서 조사한 노래

	가수	연령	곡명	내용	구분	비고
1	Good Boys		아들의 생각 (Хүүнийн бодол)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되어 하늘나라로 가서 만나고 싶다.	창작동요	일어, 몽골어 혼용
2	Good Boys		LP판(Пляз)	다양한 음악에 취함	가요	
3	Good Boys		마법의 꽃(Шидэт цэцэг)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꽃	창작동요	
4	Good Boys		영웅 슈트삼촌 (Баатар Цогтлын Нагац)	영웅호걸을 묘사	민요	나담 때 부름
5	Good Boys		오! 슬랙미오			
6	Good Boys		나이가 많아 (Саячиг буурал)	그리운 아버지	창작동요	
7	Good Boys		아가야 이리와 (Маамуу нааш ир)	아가야 놀자	창작동요	
8	Good Boys		무당 자이랑(Бөө зайран)	강을 사이에 두고 서 로 자신의 것이라 싸 움	영화 주제가	
9	??	?	센데르 아가씨 (Сэндэр Хсин)	채물만 밝히는 부모를 원망하는 딸의 마음	민요	우계정
10	알탕준 (Алтанзуул)	11	검은 말(Хар Морь)	여인을 기다리는 노래	민요	
	오르강토운 (Удгантуул)	10				
	바트체체 (Бэртцэцэг)	10				
11	훈량(Хулан)	11	내 친구(Миний найз)		민요	부리아 트
12	??	?	모고이 에렌(Могой Хээр)	땀 같은 각색말	민요	
13	툽원들가 (Төвшингулга)	10	팍팍치만한 나무 (Тохой зандая мод)	사랑하는 이에게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하는 노래	민요	
14	Good Boys		고난 하르(Гулан хар)	날선하고 몸이 긴팔, 고난 하르에 대한 묘사	민요	

Boys'의 구성원은 오드수렌(Одсүрэн, 11세), 짜르갈(Жаргал, 10세), 텔르민(Толмэн, 11세), 몽흐바야르(Мөнхбаяр, 12세) 등이다. 'Good Boys'와 간치백 선생의 합창반 아동들이 불러준 동요는 총 14곡이다. 이는 <표 1>과 같다.

이상 간치맥 선생의 합창반 아동들은 가요, 창작동요, 몽골민요 등을 배운다. 이 외에도 간치맥 선생에게 음반 세 장을 받았는데, ① 민요 중 동요처럼 사용하는 곡으로 총 21곡이 수록되어 있고, ② 간치맥 선생이 창작한 동요 28곡, ③ 창작동요로 애창되는 곡 19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5월 20일 수요일, 데. 릉승샤랍(Д. Лувсаншарав)의 자택에서 대담을 나누었다. 그는 몽골의 대작곡가이며, 몽골동요를 작곡한 초기 작곡가 중 유일한 생존자이다. 대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몽골의 동요는 20세기에 시작되었다. 동요가 발생하기 이전에 동요는 민요, 울게르(Улгэр, 설화서사가), 토울(тууль, 서사가), 속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몽골의 전래 노래 속에서 과거 몽골 아동들은 성장했다. 예를 들면, 구비문학 중에는 아동이 자기 전에 불러주는 자장가, 아이를 예뻐해 주는 말 등이 있었다.

몽골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학교가 형성되고, 동요와 청소년의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학교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몽골동요가 존재할 수 없었다. 과거 몽골 아동들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 당시에는 학교도 학교 교육도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학교교육이 시작되었고, 수업을 통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동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림승샤랍은 석사과정 중에 몽골 동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 작곡을 시작하였다. 당시 체. 일학바수랭(Ч. Лхамсүрэн: 1917-1979), 데. 나왕수랭(Д. Наваансүрэн: 1922-2005), 아. 삼발훈덱(А. Самбалхүндөв: 1921-1989) 등 3명의 작사가와 함께 의견을 모아 동요를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이들과 함께 창작된 동요는 2006년도에 『마보 나쉬 이르』<sup>9</sup>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외. 돌거르(В. Долгор)라는 가수가 당시 동요를 많이 불렀는데 목소리가 아이 같았고, 동요를 잘 불러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5월 21일 목요일, 외. 돌거르(В. Долгор)의 자택에 찾아갔지만 지병으로 대담이 불가능했다. 몽골동요에 관한 서적을 찾기 위해 국가도서관, 국립어린이도서관, 국립몽골문화예술대학교 도서관을 찾아 엔비쉬 교수가 말한 3권의 몽골동요 집을 입수했다.

<sup>9</sup> Д. Лувсаншарав, *Маамуу Нааш Ир*, Улаанбаатар, 2006(데. 릉승샤랍, 『아기야 이리 외』 울란바타르, 2006)

이상 잔여일은 모두 악보 혹은 기타 자료 수집을 위해 서점과 음반가게를 찾았다.

### 3. 동요의 탄생

몽골어로 동요는 ‘후흐딩 도(Хүүхдийн дуу)’라고 한다. 직역하면 어린이 노래인 동요이다. ‘후흐딩 도’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시대로 도래한 1940년대 이후의 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에는 전래동요가 없다.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학계에서 분류하는 분류체제와 다르다는 의미다. 『몽고족 아동문학개론』<sup>10</sup>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몽골 동요는 몽골민족과 동시에 탄생하였고 몽골민요의 중요한 조성 중 하나이다. 역사적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시대 이전 몽골 동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해방 전의 몽골족 동요는 몽골족 민가(民歌) 대가족의 일원으로 아직까지 “독립적인 문호”를 전립하지 못하였다.

몽골족 동요는 몽골민가의 해양 속에서 뿌리를 내렸고, 성장하였다. 또한 이를 같이 하여 자신의 선명한 연령, 언어 등의 풍격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린 아동들이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덕(德), 지(知), 체(體), 미(美)적 면에서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일종의 없어서는 안 될 예술형식으로 되었다.<sup>11</sup>

이상과 같이 몽골에서 동요란 단어는 사회주의 시대 이후에 발생한다. 이전 몽골의 전래동요는 몽골의 민요 중에 성인이 아동들을 위해 부르거나 아동들이 성인에게 배우는 노래였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에서 전래동요란 구분과는 사교의 차이가 있다. 이는 다음 문장에서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면 미취학 아동들이 부르는 동요 중 1949년 이전에 창작한 것은 매우 적다.<sup>12</sup> 7-15세 되는 아동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성인

<sup>10</sup> 哈斯巴拉特(2002), 상계서.

<sup>11</sup> 哈斯巴拉特(2002), 상계서, 241쪽.

<sup>12</sup> 이 내용은 창작동요가 발생하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임.

가곡에 근접한다. 때문에 성인들의 곡이 아동들에게서도 유행된다. 이러한 연령 때 아동들이 부르는 노래의 특징은 제가형식이 다양하고, 생활을 폭넓게 반영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 은혜> 등이다. 그 형식으로는 오르탕 도(уртын дуу, 장가, 長歌)와 보긴 도(Богиню дуу, 단가, 短歌) 및 트솜 등 3가지 종류이다.<sup>13</sup>

이렇게 몽골전래동요는 성인들에 의해 구전된 민요 혹은 서사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데, 름승사람의 대답 내용과 상응한다. 때문에 몽골에서 한국의 고정관념으로 전래동요를 찾는다면 찾을 수 없다.

이는 몽골인의 전통 생활양식과 사회적 특수성 때문이다. 몽골인들은 유목생활을 하며 계절마다 가장 좋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한다. 유목사회인 몽골에서는 아동이 집단적으로 무리지어 유희를 즐기기가 어렵다. 유목사회의 특성상 가족단위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유목사회에서 아동이 탄생하여 성장하기까지 부모 혹은 조부모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고, 항상 다섯 명의 가족인 양, 소, 말, 낙타, 연소와 함께 친구가 되어 생활한다. 때문에 성인이 아동을 위해 불러주는 노래 혹은 성인들이 창작하거나, 구전(口傳)된 노래를 아동들이 부르는 예가 많다. 이로 인하여 몽골에서는 전래동요를 분리하여 구분하지 않는다.

몽골전래동요는 전래동요란 명칭 없이, 민요 중 오르탕 도와 보긴도, 서사가 사이에 존재했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전래동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성인에 의해, 성인에 의한 구전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골의 『몽고족아동문학개론』에서는 몽골전래동요의 특징을 서술하기도 한다.

① 창작 년대와 창작가를 알 수 없는 곡으로 몽골인들의 장기간 역사생활 중에서 형성된 것이다. ② 허다한 작품들은 민간의 구전으로 혹은 소년 아동들 간의 상호 구전으로 전해졌고, 대대로 유전되어 왔다. 때문에 같은 원본의 동일한 하나의 노래도 장시간의 유전가운데서 많은 변화를 가적오고, 같은 가사, 곡조, 명칭이 지역에 따라 다른 원인이 된다. ③ 몽골 동요의 변화이다. 역사상 몽골 동요의 작품이 많지 않기에 그 시대의 동요는 성인가곡의 경향과 같게 전한다. 때문에 어떤 성인가곡은 아동들 사이에서 유전되기에 차츰 동요로 변하여 전한다.<sup>14</sup>

이상을 정리하면, 몽골의 전래동요는 성인가요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전래동요’라고 달리 명명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성인에 의해 창작되었고, 아동을 위

<sup>13</sup> 哈斯巴拉特(2002), 상계서, 248쪽.

<sup>14</sup> 哈斯巴拉特(2002), 상계서, 253쪽.

해 구전되어 왔기에 향수자가 누구인가보다는 전수자와 연창자가 지대한 원인이 된다.

몽골에서 동요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시대부터이다. 학교가 생기고,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아동을 위한 노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몽골 작곡가들의 조합인 몽골음악 작곡가 협회(Монголын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Холбоо)는 동요를 창작하기 시작한다. 몽골 동요가 작곡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의 일이다.

1940~50년 일하. 도르즈(Дха. Дорж), 세. 건치소물락(С. Гончигсумлааг), 일. 머르더르츠(Л. Мөрдөрц), 데. 고펜(Д. Гомб) 등의 작곡가들의 작품이 창작되었다.

1950년~60년에는 데. 름승샤랍(Д. Лувсаншарав), 체. 수흐바타르(Н. Сүхбаатар) 등이 동요를 작곡하였으며, 1960년 이후 오늘날까지 여러 동요가 창작되었다.<sup>15</sup>

1971년 몽골인민공화국 혁명 50주년을 맞이하여, 몽골음악작곡가협회는 청소년을 위한 노래 40곡을 작곡하고, 노래 선집 『새벽 아침 안녕하세요(Гэгээн өглөө сайн бай на уу)』<sup>16</sup>를 출판한다. 이후 아동을 위한 동요집이 출판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출판물이 『은종(銀鐘)의 노래 I』<sup>17</sup>이다. 이 책은 배. 초거(Б. Цогoo)와 엔. 체렌닐(Н. Цэрэний л)이 정리했다. 책의 제목을 ‘은종의 노래’라 한 이유는 종소리처럼 영원히 세상에 울리 썬지기 바라는 이유에서이다.

이후 1981년 몽골인민공화국 혁명 60주년을 기념하여, 맑은 하늘, 황금빛 태양, 알록달록한 꽃들, 과일, 깨끗한 자연의 경관들을 자아내는 완벽한 대자연에 더불어 사는 몽골 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아 이 땅의 주인인 몽골인민들의 행복한 60년간의 인생을 기념하여 『은종(銀鐘)의 노래 II』<sup>18</sup>가 출판된다. 이 책은 1940년대 이래 여러 해 동안 창작된 모든 동요를 수록하였으며, 아동들의 동심, 우정 그리고 사회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사상까지 내포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sup>15</sup> Б. Цогoo - Г. Бирваа(1981), 상계서, 4쪽.

<sup>16</sup> Монголын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Холбоо, Гэгээн өглөө сайн байна уу,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71 (몽골음악 작곡가 협회, 『새벽 아침 안녕하세요』, 울란바타르: 국가출판사, 1971).

<sup>17</sup> Монголын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Холбоо(1975), 상계서.

<sup>18</sup> Б. Цогoo - Г. Бирваа(1981), 상계서.

그리고 1986년 『은봉(銀鐘)의 노래 III』<sup>19</sup>가 출판되었는데, 1960년대 이래 창작된 동요들 중 가장 유명한 곡과 당시 창작된 곡까지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1942년부터 몽골 창작동요를 만들기 시작, 작곡가 중 가장 중요한 4명의 인물을 꼽는데, 1940년대 세. 건직소몰락과 1950년대 데. 톨승샤랍, 배. 초기, 일. 갈만다흐 등이다. 이들 중 초거는 동요선집을 집대성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편, 내몽골의 경우는 1945년 항일전쟁 후부터 찾을 수 있다. 1953년 내몽골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소화음악교재』 소개자가 있었다. 1956년에 최초로 몽골문으로 된 전문적인 음악교재가 편찬되었다. 이 책에는 초급, 중급, 고급 학년용으로 되었고 모두 58곡의 창작동요가 수록되었다. 그 중 몽골문으로 된 작품이 21곡이고 한문 작품에서 번역한 것이 31곡이다. 1966년 내몽골인민출판사에서 5권의 『아동가곡』을 출판하였다. 그 중에는 260곡의 창작동요가 있는데 절반이상은 몽골문으로 되었다. 1957년에 『화뢰(花蕾)』라고 하는 몽골문 아동잡지가 탄생하였다. 이 잡지는 문화대혁명 전까지 20여 곡의 창작동요를 발표하였다. 1959년부터 내몽골인민방송국이 설립되어 몽골어로 개척한 『소년아동방송』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많은 동요를 방송하였다. 건국하여서부터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17년간 몽골 동요는 초보적인 발전단계로 본다. 이 시기에 몽골문으로 창작 발표된 동요는 200여 곡이다.<sup>20</sup>

이후 내몽골에서 1966~1976년까지 10년 동안 몽골동요는 약 40곡 창작되었다. 1978년부터 개혁개방 이후 17년 사이 몽골동요는 매우 큰 발전을 가져왔다. 1975~1995년 동요작품 270곡이 창작되었다. 내몽골에서 창작된 몽골동요는 아동들의 이상, 도덕 그리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품, 국가와 민족 사업의 계승자로 이끄는 내용으로 된 작품이 100여곡이다. 대자연을 주제로 한 동요 15곡, 야생동물을 주제로 한 동요 40곡이 있다.<sup>21</sup>

이상 몽골동요는 1940년대 사회주의시대로 도래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이전 몽골의 전래동요는 ‘전래동요’ 혹은 ‘동요’라는 분류 없이 성인들의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와 학교 교육으로 인해 아동을 위한 노래인 동요가 필요함을 깨닫고 창작동요가 만들어졌다. 몽골에서 ‘전래동요’란 분류가 없는 것은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회적 원인에 기인한다. 유목민인 몽골인들은 가족단위로 이동하며 생활하기에 성인이 아동을 위해 부르는 노래, 혹은 성인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sup>19</sup> Монголын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Эвлэл(1986), 상계서.

<sup>20</sup> 哈斯巴拉特(2002), 상계서, 257-261쪽.

<sup>21</sup> 哈斯巴拉特(2002), 상계서, 257-261쪽.

동요가 된 노래들이 있다. 그러나 전래동요라 분류하지 않는다.

#### 4. 분류와 종류

몽골의 전래동요는 전래된 성악곡 속에 포함된다. 때문에 전래동요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앞서 발표한 논문 중에 “한·몽 민요 비교 연구의 필요성”<sup>22</sup>에서 몽골의 전통 성악곡의 분류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몽골의 전통 성악곡의 분류법은 ① 기능에 따른 분류, ② 부족에 따른 분류, ③ 가사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④ 선율구조와 형식 및 창법에 따른 음악적 분류 등이다. 이상 몽골 전통 성악곡의 분류를 보면 연창 혹은 연회자에 따른 분류는 없다. 때문에 ‘전래동요’란 용어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몽골 구비문학』<sup>23</sup>에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아동구비문학(Хүүхдийн Аман Зохиол, 후초딩 아망 저허얼)’이 분장되어 있다. 구비문학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에서 아동에 의해 전승되는 것을 아동구비문학이라고 한다. 특징으로는 아동을 통해 단순히 구비 전승되는 것을 넘어 지혜와 지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놀이를 유도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이렇게 아동구비문학에는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 <표 2>와 같다.

이상의 몽골 아동구비문학의 분류에서 자장가인 부젠 도의 경우는 정확히 노래에 속하지만 이차의 분류들은 음률이 포함되기는 하나 성악곡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는 몽골학계에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나만 본 연구주제를 위해 몽골에서 전래하는 전통성악곡 중 아동이 성인과 함께 부르거나, 아동이 성인으로부터 습득하게 된 노래를 선별하여 몽골의 전래동요라 할 것이다. 이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몽골의 음악교사, 교수, 음악학자, 민요 가수<sup>25</sup> 등의 자문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즉 전통성악곡 중 아동도 부르는 노래를 몽골전래동요라 제한한다.

<sup>22</sup> 박소현, “한·몽 민요 비교 연구의 필요성”, 『민요학』(서울: 한국민요학회, 2003), 제12집.

<sup>23</sup> Х. Сампилдэндэв, Ш. Гадамба(2006), 상계서.

<sup>24</sup> Х. Сампилдэндэв, Ш. Гадамба(2006), 상계서, 313쪽.

<sup>25</sup> 앞서 2항 현지조사에서 언급된 인물들로 인명(人名) 서술은 생략한다.

〈표 2〉 몽골 아동구비문학의 분류<sup>26</sup>

종류	내용	비고
부행 두(Бүүлэйн дуу: 자장가)	아동을 재우고 어르는 노래	성인이 아동을 위해 부름
어허르죽 옥(Өхөөрдөх үг)	아동을 어르는 말, 예: 까장?	성인이 아동을 위해 부름
조가 옥(зугаа үг: 유치 언어)	자연 현상, 동식물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	아동의 창작 활동
나르기아 옥(Наргиа үг)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웃게 만드는 이야기.	성인이 아동을 위해 부름
조코 옥(жороо үг: 빠른 언어)	은마른 언어 습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	아동 교육을 위한
아미스갈 오르다스기호 옥(амьсгал уртагтах үг: 호흡 훈련)	단어 발음시 단음과 장음의 정확한 구사	아동 교육을 위한
행 측시플레흐 옥(хэл зүгшрүүлэх үг: 언어 훈련)	속바른 발음과 언어 발달	아동 교육을 위한
오니서기(оньсогх 수수께끼)	IQ 발달	아동 교육을 위한
토글롬 나야드민 옥(толгоом наардмын үг)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	아동 교육을 위한
주이르 케칭 옥(зүйр цэцэг үг)	윤리와 도덕적 교육	아동 교육을 위한
다이랄차안(дайралчаан)	언어 시험, 예 끝말 잇기	아동 교육을 위한

몽골 현지조사들 통해 수집한 몽골의 전래동요는 총 36곡이다. 물론 몽골국 내에서는 전래동요라 하지 않는다. 다만 몽골의 민요 중에서 아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혹은 아동이 불러왔던 노래들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상 몽골의 전래동요 36곡 중에는 주로 말에 대한 노래가 가장 많다. 그 외에 자연을 찬양한 노래, 고향을 그리는 노래, 어머니의 은혜, 애정 노래, 남자 중에 남자인 영웅호걸을 묘사한 노래 등이다. 그 종류로는 서사가도 있지만, 주로 민요 중 단가(短歌)인 보긴 도가 대부분이다.

<sup>26</sup> Х. Сампилдэндэв, Ш. Гаадамба(2006), 상계서. 314-334쪽 참조.



〈표 3〉 몽골의 전래동요 목록

	곡목	내용	비고
1	얼룩말(Алаг Морь)	말이 자신의 곁에 있듯이 사랑하는 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	외국 어린이에게도 쉬운 노래
2	얼룩말(Алаг Морь)	자신의 말을 자랑	
3	먼 곳의 신기루 (Алсын Газрын Зэргэлээ)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다리강가족 민요
4	뒤쪽에 나무가 있는 빈드리아산 (Араараа Модтой Виндэрьяа)	산이 자연을 장식하듯 몽골의 문자를 찬양	부리아드족 민요/ 음악교과서II 수록
5	보름달(Арван Тавны Сар)	사랑하는 이를 밝은 달에 비유하여 찬사	몽골대표 민요
6	보름달(Арван Тавны Сар)	남을 그리는 탄식	우렐첵족 민요
7	영웅 축트삼촌 (Баатар Цогтын Нагац)	영웅호걸을 묘사	나담 때 많이 부름
8	타코난 성격(Багаан Зан)	어린이의 성격을 오가축에 비유	바야드족 민요/음악교과서 I 수록
9	머리를 땅아 음린 아가씨는 집안의 자랑(Боодогтой Сэвгэрууд Гэрийн Чимэг)	몹게 자랑한 아가씨는 집안의 열곡이다	토브고드족 민요
10	갈색가죽 가방 (Булигаар Хүрэн Цүлж)	시골아가씨가 개학 때 어머니가 챙겨주신 사랑가방을 자랑	차호칭족 민요
11	희색 말(Буурал Морь)	왕리란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	
12	자장가(Бүүвэийн Дуу)	흔들한 조상들을 이야기하며 아이를 어르는 소리	
13	화려한 말(Ганган Хул)	자신의 말을 자랑	
14	간디 나무(Гандий Мод)	사랑하는 이를 그림	
15	역손가락(Гарын Арван Хуруу)	사랑하는 이에게 애정을 다했다	
16	검은 말(Гунан Хар)	날선하고 몸이 긴말 고난 하르	
17	쪼라이 겐데네 (Жуурай Гэлдэнэ)	낙타의 걸음걸이	바야드족 민요/ 음악교과서 II 수록
18	펼쳐진 현구름 (Зэдгий Цагаан Үүл)	자신을 버리고 떠난 님이 잘살고 있는지	
19	팔팔(Лоолол)	잃어버린 돼지를 찾는 소리	설화 서사가/ 돼지 부르는 소리
20	뱀 같은 갈색 말(Могой Хээр)	경마에서 항상 우승하는 말	
21	나이잔 강(Найгал Гол)	사랑하는 님을 그림	
22	산히요 걸림(Санхью Галем)	사랑하는 님을 그림	'걸림'은 말안장으로부터 말 등을 보호는 가죽

	작품	내용	비고
23	강줄기의 풀(Судгийн Ногоо)	남을 그리며 가슴아파함	
24	센데르 아가씨(Сэндэр Охин)	세물만 아는 부모를 원망하는 딸	우젠칭족 민요
25	초원의 추위 (Талд Унасан Жавар)	자신의 무지함을 몽골 추위에 비유하여 원망하지 말라	
26	토르고드의 고향 (Торгууд Нутаг)	고향을 사랑하며 그림	
27	팔꿈치만한 나무 (Тохой Зандан Мод)	사랑하는 이와 재회를 희망	
28	재잘대는 까치 (Үглээ Шаасгай)	연인을 까치에 비유	더르위드 족 민요
29	검은 말(Хар Морь)	여인을 기다림	
30	하티르(Хатир)	즐겁게 춤추자는 노래 춤곡	부리아드족 민요/‘하티르’ 는 춤사위 중에 구름
31	호트고이드의 망아지 (Хотгойдын Унага)	몽마에 대한 자랑	호트고이드족 민요/6살 아이가 망아지를 타고 꾸 르는 노래
32	몇 마리의 양 (Хэдэн Гялаан Хонь)	해학적인 노래, 양떼와 낙타를 함께 섞으면 안 되는 실수	자호창족 민요
33	차강사르 신날(Цагаан Сарын Шивийн Нэгэн)	설날에 사랑을 고백할까 고민	
34	석서르가 아이 (Шигшүргийн Ай)	말 길음을 묘사	
35	어머니 은혜(Эхийн Ач)	어머니 은혜	몽골대표 민요
36	윤등 거거(Юндэн Гөөгөө)	멋진 남자 유통거거의 사랑이 야기	설화 서사가

## 5. 음악적 특징

몽골 동요의 특징을 언급하기에 앞서 작곡가 데. 룬승샤랍(Д. Лувсаншарав)은 몽골 창작동요의 특징으로 4가지를 말해주었다. ① 5음 음계를 통해 노래를 작곡한다. ② 반드시 배우기 쉬운 리듬으로 작곡한다. 예를 들어 선율을 반복하도록 하거나, 계단 오르듯 순차적인 음계와 리듬을 사용하여, 한곡만 배우면 모두 부를 수 있도록 한다. 리듬은 1 + 1/2 + 1 + 1/2식으로 분할하는데 시작은 4분 음표 다음은 그 반인 8분음표 다음은 그 반인 16분음표로 [ ] → ♩ → ♪ 방식으로 리듬을 분할해 간다. ③ 아동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고음역과 저음역 두 가지로

만든다. 아동의 성장기 동안 변성기를 갖기 때문이다. ④ 노랫말은 아름다워야 하며, 몽골의 일상, 자연, 고향 등을 표현하여 교육성을 강조한다.

때문에 민요 중에서 아동이 부르는 노래들은 이러한 규칙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가르친다. 몽골민요는 음악적으로 보긴 도와 오르팅 도로 구분된다. 몽골의 전래동요로 사용되는 민요들은 주로 보긴 도이다.

보긴 도는 오르팅 도와 음악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정확한 박자와 장식의 축소, 그리고 상연에 있어서 극도의 활기, 경쾌함 등에서 나타난다. 보긴 도는 오르팅 도보다 쉽고 자유롭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전창되고 있다. 원래는 풍자적, 해학적인 내용이 주류였는데, 이후 점점 더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게 되었다.<sup>27</sup>

몽골전래동요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곡을 예로 들기로 한다. 보제는 검은 밭 <고난 하르(Гунац Хар)><sup>28</sup>와 <영웅 축트삼촌(Баатар Цогтын Нагац)>이다. 먼저 <고난 하르>의 악보를 보면 다음 <악보 4>와 같다.

<악보 4> <고난 하르(Гунац Хар)><sup>29</sup>



<고난 하르>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Гунац хар нь гунац хар нь (ээ)	고나한 고나한 검은 밭은 (에에)
Гуяц дээр нь дарсан тамгатайдаа, хө	허벅지에 도장이 있다 허
Гуяц дээр нь дарсан тамга нь (ээ)	허벅지 위에 찍힌 도장은 (에에)
Гурван номын үсэгтэйдээ, хө	세 가지 글자가 찍혀 있다 허

<sup>27</sup> 박소현(2003), 상계서, 장근.

<sup>28</sup> 날선하고 몸이 긴 말

<sup>29</sup> Т. Гун-Авжап - Р. Оюунбат · Ц. Навчзаа(2003), 상계서, 58쪽.

Дөнөмхөн дөтөнхөн хар нь(ээ)	더너형 더너형 검은 말은 (에에)
Дөрөөн дээрээ дарсан тамгатайдаа, хө	발걸이에 도장이 있다 허
Дөрөөн дээр нь дарсан тамга нь (ээ)	발걸이에 찍힌 도장은 (에에)
Дломьн үсэгтэйдээ, хө	네 가지 글자가 적혀 있다 허
Тайган тайган хар нь(ээ)	타이강 타이강 검은 말은 (에에)
Ташаан дээрээ дарсан тамгатайдаа, хө	꼬리 옆에 도장이 있다 허
Ташаан дээр нь дарсан тамга нь (ээ)	꼬리 옆에 찍힌 도장은 허
Талан номьн үсэгтэйдээ, хө	다섯 가지 글자가 있다 허
Барьсан тапуур нь бяцархайбо	잡고 있는 채찍이 울퉁불퉁하면
Барим яргаймундаа юу даа, хө	손에 잡을만한 나무대가 더 많은데 허
Багахан тэр минь тоохгүйбол	어린 그 녀미 찾아보지 않는다면
Багын талил нь мундаа юу даа, хө	어릴 적 친구가 더 많은데 허

Ишар <голан хар>и ноллетмалон 'голан хар'ран налшенхого томй гинмале даехе йоша хаме засини малол зарланхас наелонид. 2/4барзари 5елм улжело улжеле шол, лар, до, лел, миймел, хан улдарьбан ишарел немзи аамнеда.

наел <акьор 5>не <елмол улдрьсамчон>и акьорид.

<акьор 5> <елмол улдрьсамчон(Баатар Цогтшн Наган)><sup>30</sup>

<sup>30</sup> 1. Гул-Аажав · Р. Олуурбат · Ц. Навчаа(2003), шангелел, 21-22лел.

<영웅 축트삼촌>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Наруужан голын маань усанд нь болбол	우리 서쪽 강의 물이라면
Загасгүйгээр бодоо юу даа хө Бавайсан сахалтайбаатар Цогтын нагацъя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허 엄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가진 영웅 축 트삼촌을
Бага хүнээр банжаа юу даа чи Башрын үгээр та юугаа хийх вө	작은 사람으로 반짜 <sup>31</sup> 하겠소? 숙이 <sup>31</sup> (가만하는) 말로 당신은 뭘 하겠 소?
Байж оронгол дээргүйюу даа хө Зүүхэн голын маань усанд нь болбол	그만 두는 게 낫지 않겠소? 허 우리 동쪽 강의 물이라면
Загасгүйгээр бодоо юу даа хө Жирийсэн сахалтайбаатар Цогтын нагацъя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가늘고 긴 수염을 가진 영웅 축트삼촌 이 허
Жирин хүнээр банжаа юу даа чи Зүйбүсын үгээр та юугаа хийх вө	보통 사람으로 반짜 하겠소? 상식에 이긋나는 말로 당신은 뭘 하겠 소?
Эүгээр явбал дээргүйюу даа хө	그냥 가는 게 낫지 않겠소? 허

이상 <영웅 축트삼촌>의 노랫말은 남자 중의 남자인 영웅호걸을 묘사하는 내 용으로 주로 몽골의 대축제인 '나담' 때 많이 부르는 곡이다. 역시 2/4박자의 5음 음계로 음계는 라, 도, 레, 미, 솔이며, 음폭은 한 옥타브 반 이상을 넘지 않는다.

예로 제시한 곡 외에 수집한 36곡 모두 박자는 2/4박자, 3/4박자, 4/4박자가 주 류이며, 단 두 곡만이 3/8박자, 6/8박자이다. 모두 5음 음계이며, 음폭은 한 옥타 브 반을 넘지 않는다.

이상 몽골동요의 음악적 특징은 짧고, 정결하고, 유창하고, 형상적이고, 알기 쉽고, 외우기 쉬운 것이 대부분이다.

<sup>31</sup> 어린아이들을 주리시키는 말.

## 6. 결론

이상 약 6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수집, 10일간의 몽골 현지조사들 통해서, 몽골의 전래동요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하였다

몽골 현지조사는 2009년 5월 14-24일, 10일간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진행하였으나, 항공 일정상 실제 조사기간은 8일간이었다. 몽골 현지조사에서는 음악학자 제. 엔비쉬(Ж. Энзбиш), 초기 동요작곡가로 유일한 생존자인 데. 림송샤란(Д. Лувсаншарав), 몽골 어린이궁전의 합창지도 교사이자 동요 작곡가 제. 간치액(С. Ганчимэг)과 그의 학생들, 마두금(馬頭琴) 연주자이자 작곡가 제. 푸렙후(Ц. Пүрэвхүү), 국립몽골문화예술대학교 민족음악대학 교수 일. 어른차액(Л. Оюулчим) 등을 직접 만나 대담과 실연을 관찰한 조사였다.

몽골동요의 역사는 ‘동요’라는 의미인 ‘후흐딩 도(Хүүхдийн дуу)’란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 시기는 1940년대 사회주의시대로 도래하면서 부터이며, 중국의 내몽골은 1945년 항일전쟁 이후부터이다. 이전 몽골동요는 ‘전래동요’ 혹은 ‘동요’라는 분류 없이 성인들의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와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아동을 위한 노래인 동요가 하나의 장르로서 탄생된 것이다. 몽골에서 전래동요 혹은 동요란 분류가 없었던 것은 유목사회란 특수성 때문이다. 유목민인 몽골인들은 가족단위로 이동하며 생활하기에 성인이 아동을 위해 부르는 노래, 혹은 성인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동요가 된 노래들이 있다. 그러나 전래동요 혹은 동요라 분류하지 않는다.

몽골동요의 탄생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몽골에서는 전래동요란 명칭 없이 몽골의 전통 성악곡 중 민요인 오르딩 도와 보긴 도, 서사가 사이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때문에 전하는 전통 성악곡 중 아동도 부르는 노래를 전래동요의 범주로 제한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몽골전래동요는 총 36곡이다.

몽골전래동요의 노래말은 주로 밭에 대한 노래가 가장 많다. 그 외에 자연을 찬양한 노래, 고향을 그리는 노래, 어머니의 은혜, 애정 노래, 영웅호걸을 묘사한 노래 등이다. 음악적으로는 비교적 유펙이 넓지 않은 곡으로 주로 민요 중 단가(短歌)인 보긴 도가 대부분이다.

수집한 몽골전래동요 36곡을 음악적으로 분석해보면, 박자는 2/4박자, 3/4박자, 4/4박자가 주류이며, 단 두 곡만이 3/8박자, 6/8박자이다. 음계는 5음 음계로 솔·라·도·레·미 혹은 라·도·레·미·솔 등으로 구성되나 예외적인 음계도

있다. 음폭은 한 옥타브 반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몽골전래동요의 음악적 특징은 짧고, 정경하고, 유창하고, 형상적이고, 알기 쉽고, 외우기 쉬운 것이 대부분이다.

이상 몽골전래동요의 음악적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래동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세계의 전래동요와도 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의 음악문화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절감(切感)한 것이지만, 기존 고정관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현지조사에서도 우리와 같은 갈래로서 '전래동요'를 조사하였다면 실패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의 현지조사에서는 그들의 음악분류와 개념을 미리 조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박소현, “한·몽 민요 비교 연구의 필요성”, 『민요학』(서울: 한국민요학회, 2003), 제12권.
- 哈斯巴拉特, 『蒙古族儿童文学概论』(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2).
- Б. Цогоо · Г. Бирваа, *Мөнгөн Хонхны Дуу II*,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н Хэвлэлийн н Газар, 1981.
- Д. Лувсаншарав, Маамуу Нэвш Ир, Улаанбаатар, 2006.
- Монголын Хөгжмийн Зохиолчдын Холбоо, *Гэгээн өглөө сийн байна уу*,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71.
- \_\_\_\_\_, *Мөнгөн Хонхны Дуу*,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75.
- \_\_\_\_\_, *Мөнгөн Хонхны Дуу III*,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86.
- Т. Гун-Аажав · Р. Оюунбат · Ц. Навчаа, *Монгол Аарцын Дуу*, Улаанбаатар, 2003.
- Х. Сампилдрэндэв, Ш. Гаадамба, *Монгол Аман Зохиол*, Улаанбаатар: Моголулс Ший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л, 2006.

## 부록 악보32

\* 부록에 수록된 악보는 모두 『몽골 민요』<sup>33</sup>에 수록된 것으로 이하 각주를 생략할 것이다.

\* 논문의 본문에 수록한 곡은 제외하였다.

\* 곡명은 최대한 한국어에 가깝게 번역하였으며, 몽골에서 차용하는 문자인 키릴문 전사와 이에 가까운 한국어 발음을 동시에 기재하였다.

\* 각 악보마다 노래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노랫말을 번역하였다.

## 1. 얼룩말(Алаг Морь, 알락 모리)

외국 어린이들이 배우기 쉬운 노래. 노랫말은 말(馬)이 자신의 곁에 있듯이, 사랑하는 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



Алаг морь нь аргамжтай даа хө	얼룩이 말은 묵여있다 허
Алдуурахгүй гэсэн чинь яалаа	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야알라아 <sup>34</sup>
яалаа хө	야알라아 허
арван найман шасагд нь хө	열여덟 살에는 허
Алдуурахгүйгэсэн чинь яалаа	헛갈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야알라아

<sup>32</sup> 수록한 부록 악보는 동양음악연구소로부터 몽골동요 20곡을 신곡할 것을 요청 받아, 가장 많이 전창되거나 혹은 몽골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것,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가 추천한 곡들로 선곡하였다.

<sup>33</sup> Т. Гун-Аажав · Р. Оюунбат · Ц. Навцаа, *Монгол Аврцын Дуу*, Улаанбаатар, 2003(테. 곤-아아찌브 · 페. 어은마트 · 세. 남차아, 『몽골 민요』, 음란바타르, 2003).

<sup>34</sup> “-라고 했잖아”와 같이 따져 묻는 말 혹은 “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와 같은 의미임.



яалаа хө

야알라아 허

Хонгор морь холбоотой доо хө

사랑하는 말이 묶여있다 허

Холдохгүй гэсэн чинь яалаа

벌리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야알라아

яалаа хө

야알라아 허

Хорин хэдэн насанд нь хө

스물 몇 살에는 허

Холдуулахгүй гэсэн чинь яалаа

떠나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야알라

яалаа хө

아 야알라아 허

## 2. 먼 곳의 신기루(Алсын Газрын Зөргэлээ, 알식 가즈링 제르게레)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몽골 동부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다리강가(Дарьганга)족의 노래.



Алсын газрын Зөргэлээ нь хө  
Адуу шиг мал шиг төрөлзөнө  
Алиа хонгор хүүгээ хө  
Айсуй бахад нь баярлалаа

아득히 먼 곳의 신기루는 허  
말들처럼 가축들처럼 아른거린다  
개구쟁이 사랑스런 나의 아들이 허  
다가오는 기쁨이 고맙다

Холын газрын Зөргэлээ нь хө  
Хонь шиг мал шиг төрөлзөнө  
Хонгор жаахан хүүгээ  
Хоноод явахын хүснэ хө

아련히 먼 곳의 신기루는 허  
양처럼 가축처럼 아른거린다  
사랑스런 어린 나의 아들이  
밤을 보내고 가길 소망한다 허

### 3. 갈색 가죽가방(Булигаар Хүрэн Цүнх, 불리가르 후렝 충호)

몽골 서쪽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자흐칭(Захчин)족의 노래로 외국 어린이가 배우기 쉬운 노래이다. 노랫말은 시골아이가 방학을 보내고 개학이 되어, 어머니가 챙겨주신 사랑가방을 들고 가며 즐거운 마음을 자랑하는 노래.



Буруудаа даалтай улаанд нь хө  
Мөс нь шаргиад байна даа хө  
Булигаар хүрэн цүнхэнд нь хө  
Чихэр шаргиад байна даа хө

왼쪽으로 흐트러진 결의 빨간 말에는 허  
어름 소리 밝힌다 허  
손질한 갈색 가방 안에는 허  
사랑이 부딪친다 허

Сайвар улаан моринд нь хө  
Мөс нь шаргиад байна даа хө  
Савхин хүрэн цүнхэнд нь хө  
Чихэр ч шаргиад байна даа хө

흰 갈색 말의 말에는 허  
어름이 부서진다 허  
가죽 갈색 가방 안에는 허  
사랑도 부딪친다 허

Шингэн даалтай улаанд нь хө  
Ширгэн дээр ч байлгүй яахав ээ хө  
Шинэхэн найзын өвөрт хө  
Чихэр ч байлгүй яах ээ хө

수가 적은 결의 빨간 말은 허  
풀 위에 있네 허  
새 친구의 가슴주머니에는 허  
사랑도 있을 것이다 허

### 4. 자장가(Бүүвэйн Дуу, 부엌 도)

훌륭한 조상들을 이야기하며 아이를 어르는 소리.



Хараадаа хааны ач билээ  
 бүүвэй, бүүвэй, бүүвэй  
 Хариутган тайжийн дүү билээ  
 бүүвэй, бүүвэй, бүүвэй

하라다 칸의 손자구나  
 자장, 자장, 자장  
 하리오트강 타이즈(정승)의 동생이구나  
 자장, 자장, 자장

Зээрэлдээ мэргэний зээ билээ  
 бүүвэй, бүүвэй, бүүвэй  
 Зэерон сугсууны зээ дүү билээ  
 бүүвэй, бүүвэй, бүүвэй

제벨데 메르겐(명궁, 名弓)의 외손자구나  
 자장, 자장, 자장  
 제렝 수소(장교)의 외사촌이구나  
 자장, 자장, 자장

Будал мэргэнийүр билээ  
 бүүвэй, бүүвэй, бүүвэй  
 Будас пагайхүү билээ  
 бүүвэй, бүүвэй, бүүвэй

보달 메르겐(명궁, 名弓)의 자손이구나  
 자장, 자장, 자장  
 보닥 사가이(사카이 명수)의 아들이구나  
 자장, 자장, 자장

### 5. 화려한 말(Ганган Хул, 강강 홀)

화려고 값비싼 말을 타고 다니며, 자신의 말을 자랑하는 노래.



Ганган хулыг унаж явлаа хө      화려한 멋진 말을 타고 다녔다 허  
 Гандашийнхаа үүдээр галигуулж      간단한 문 앞을 지나가고 다녔다 허  
 явлаа хө  
 Галсан мээрэнгийнхээ нэрэн      감상 베어링 이름하에 허  
 дээр хө  
 Гайхуулж явсан буруу энгэрээ хө      자랑하고 다녔던 가슴 주머니이다 허

Цөнхөр бөрыг унаж явмлаа хө      파란 갈색 말을 타고 다녔다 허  
 Цэргийнхээ үүдээр цэлгүүлц      부대 문 앞을 설렘거렸다 허  
 явлаа хө  
 Цэндсүригийнхээ нэрэн дээр      쟁드수령 이름하에 허  
 нь хө  
 Чихшийхээ зэмгээр дэнчин      귀거리를 담보 잡았다 허  
 тавилаа хө

Улаан хэерийгээу наж явмлаа хө      빨간 갈색 말을 타고 다녔다 허  
 Усанд ойчоод сандарч явлаа хө      물에 빠져 당황했었다 허  
 Учирсан амрагтаа оныхоос хойно      만난 애인에게 갈 것을 허  
 доо хө  
 Усанд ойчсон ч хамаагүй дээр хө      물에 빠져도 상관없다 허

6. 간디 나무(Гандий Мод, 간디 모드)

사랑하는 이를 그리는 노래.



Гандийюу модонд галуу эргэнэ хө	간디 나무를 오리가 논다 허
Газрын маань холоос хүү минь	먼 곳에서 나의 그가 온다 허
ирнэ хө	
Тооройюу модонд тогоруу эргэнэ хө	터어러 나무를 학이 논다 허
Тоосны маань үзүүрээс хүү минь	자옥한 먼지 속에서 나의 그가
ирнэ хө	온다 허
Уулнаас өндөр улиас бай даггүй	산보다 높은 사시나무는 없다 허
дээ хө	
Учирснаас илүү амраг бай даггүй	만남 애인보다 친한 사람은 없다 허
дээ хө	
Хаднаас өндөр хай лаас бай даггүй	바위보다 높은 노름나무 없다 허
дээ хө	
Ханийлснаас илүү амраг бай даггүй	사귄 애인 보다 더 친한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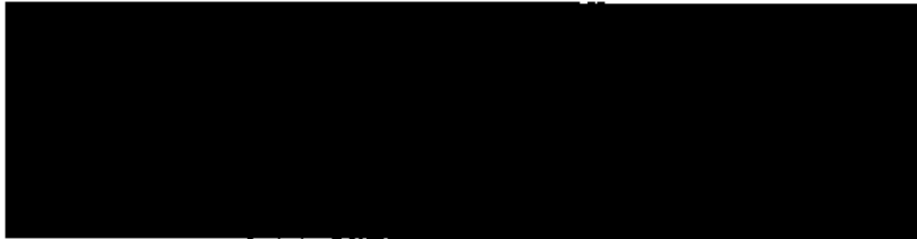
дээ хө

히

Уулаар давбал унаа минь зовно хө	산을 넘게 되면 말이 힘들어한다 히
Учирсыгаа зовоовол еөрөө зовно хө	사귄 애인을 고생시키면 자신이 힘 들어한다 히
Хадаар явбал морь минь зовно хө	바위 위로 가면 말이 힘들어한다 히
Ханилсныгаа зовоовол еөрөө зовно хө	사귄 애인을 고생시키면 자신이 힘들어한다 히

### 7. 쯤라이 겐데네(Жуурай Гэлдэнэ)<sup>35</sup>

이 곡은 몽골 초등학교 고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곡으로 몽골 서쪽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바야드(Баяд)족의 노래이다. 노랫말은 아람(aram)<sup>36</sup>이란 낙타의 걸음걸이를 묘사한 노래이다.



Аташ тэмээний алхааг дууриагаад	거세 낙타의 걸음을 따라
Аялгуут хөгжимд бийгээ биелшээ л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춘다
Жуурай гэлдэнэ, жуурай гэлдэнэ	쯤라이 겐데네 쯤라이 겐데네

Ингэн тэмээний алхааг дууриагаад	암낙타의 걸음을 따라
Ихал хөгжимд бийгээ биелшээ л	이절 음악에 춤을 춘다
Жуурай гэлдэнэ, жуурай гэлдэнэ	쯤라이 겐데네, 쯤라이 겐데네

<sup>35</sup> 낙타의 걸음걸이를 묘사한 의성어

<sup>36</sup> 5세 이하의 거세된 숫낙타.

Тормон тэмээний алхааг дууриагаад      한 살 낙타의 걸음 따라  
Төвшүүр хөгжимд бийгээ биелнээ л      톱쇼르<sup>37</sup> 가락에 춤을 춘다  
Жуурай гэлдэнэ, жуурай гэлдэнэ      쪼라이 겐데네, 쪼라이 겐데네

Ботгон тэмээний алхааг дууриагаад      새끼 낙타의 걸음 따라해  
Балчин хөгжимд бийгээ биелнээ л      말친 가락에 춤을 춘다  
Жуурай гэлдэнэ, жуурай гэлдэнэ      쪼라이 겐데네, 쪼라이 겐데네

### 8. 펼쳐진 흰구름(Задгуй Цагаан Үүл, 자드글 차강 우울)

자신을 버리고 떠난 님의 안무를 걱정하며 부르는 노래.

Дунд ээрэг

Задга - ай - ца - гаан үүл нь бол - бол Заа - вал бо - роо - ны  
үүл үү дээ Занги - раад гар - даг нулимс нь  
болбол  
Заа - вал янагийн нули - мс даа

Задгай цагаан үүл нь болбол      펼쳐진 하얀 구름은  
Заавал боорооны үүл үү дээ      반드시 내릴 비의 구름이다  
Зангираад гардаг нулимс нь болбол      목매어 나온 눈물은  
Заавал янагийн нулимс даа      반드시 연인의 눈물이다

Бөөн цагаан үүл нь болбол      많은 하얀 구름은

<sup>37</sup> 몽골의 전통악기 중 2현의 류트(lute)류 악기.

Бас боорооны үүл үү дээ  
 Бөмбөрөөд гардаг нулимс нь болбол  
 Бүр янагийн нулимс даа

또한 내릴 비의 구름이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진정한 연인의 눈물이다

Агаар тэнгэрийн үүл нь болбол  
 Аадар боорооны үүл үү дээ  
 Аяндаа гардаг нулимс нь болбол  
 Амраг янагийн нулимс даа

공 하늘의 구름은  
 호우 구름이다  
 지절로 나오는 눈물은  
 연인의 눈물이다

Хурмаст тэнгэрийн үүл нь болбол  
 Хур боорооны үүл үү дээ  
 Хуурч намайгаа зовоосон юмсан  
 Жаргаа болов уу, яагаа бол

하늘의 구름은  
 비의 구름이다  
 나를 속이고 고생시켰는데  
 행복할까 아닐까

Дан дээлтэй гарсан юмсан  
 Даараа болов уу, яагаа бол  
 Даан ч намайгаа зовоосон юмсан  
 Жаргаа болов уу, яагаа бол

단(얇은) 테셀을 입고 나갔었는데  
 습자는 알았는지 걱정이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행복해할까 어떨까

Хөвөнтэй дээлтэй гарсан юмсан  
 Хөрөө болов уу, яагаа бол  
 Хөөрхий намайгаа зовоосон юмсан  
 Жаргаа болов уу, яагаа бол

습(습들은) 테셀을 입고 나갔었는데  
 차가웠는지 아닌지  
 알쌍한 나를 고생시켰는데  
 행복해할까 어떨까



9. 뱀같은 갈색 말(Могой Хээр, 모고이 헤르)

경마에서 항상 우승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 노래.



Уулан дээр унагалсан  
 Ухаагч гүүний унага юмаа хө  
 Улсын наадамд түрүүлсэн  
 Могой хээр морь минь

산에서 태어난  
 암말의 새끼이다 허  
 국가 나담 축제에서 우승한  
 뱀 같은 말이다

Хадан дээр унагалсан  
 Харагч гүүний унага юмаа хө  
 Хавийн наадамд түрүүлсэн  
 Могой хээр морь минь

바위 위에 태어난  
 검은 암말의 새끼이다 허  
 주변 나담 축제에서 우승한  
 뱀 같은 말이다

Цасан дээр унагалсан  
 Цагаагч гүүний унага юмаа хө  
 Засгийн наадамд түрүүлсэн  
 Могой хээр морь минь

눈 위에 태어난  
 흰색 암말의 새끼이다 허  
 국가 나담 축제에서 우승한  
 뱀 같은 말이다

10. 나이갈 강(Най гал Гол, 나이갈 골)<sup>38</sup>

사랑하는님을 그리는 노래.

Дунд эвэрэг

Най - гал голын эрвээхэй нь хө  
 Най - чаа дагаад эргэж байнаа хө

Найгал голын эрвээхэй нь хө  
 Наягаа дагаад эргэж байнаа хө  
 Ная хүрсэн настангууд нь хө  
 Найраш дундаа цэнгэж суунаа хө

나이갈 강의 나비는 허  
 잎을 따라 돈다 허  
 여든 된 어르신들은 허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앉아 있다 허

Жаргал голын жараахай нь хө  
 Замгаа дагаад жирийж байнаа хө  
 Жар хүрсэн настангууд нь хө  
 Жаргал дундаа мэлмэрч суунаа хө

자르갈 강의 물고기는 허  
 물속 풀을 따라 달린다 허  
 예순 된 어르신들은 허  
 행복속에 눈물을 흘린다 허

Шибээний толгой галхаад бай наа хө  
 Сэрүүн орохын тэмдэг юм уу даа хө  
 Сэтгэл санаанаас минь гарахгүй  
 байнаа хө

갈대 머리가 흔들린다 허  
 추위가 오기를 표시한다 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허

Шинэхэн болохоороо тэгдэг ч юм  
 уу даа хө

새로워서 그런가 허

<sup>38</sup> 나이갈이란 강(江) 이름.

Өвсний толгой галжаад байнаа хө      풀의 머리가 흔들린다 허  
 Өвөл болохын тэмдэг юм уу даа хө      겨울이 오기를 표시하는가 허  
 Өр зүрхизэс минь гарахгүй юмаа хө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허  
 Өөрийн болохоорсо тэгдэг ч юм уу      나의 것이라서 그런가 허  
 даа хө

### 11. 강줄기의 풀(Судгийн в Ногоо, 소드징 노래)

님을 그리며 가슴아파하는 노래.

Хөнгөн

Су - д - гийн    но - гоо    суг - с - раад    бай - на    хө  
 Су - р - гий нь    дуулахаар    ө - рөв - дөөд    бай - на    хө

Судгийн ногоо сугсраад байна хө	강가 풀은 잘 자랐다 허
Сургийнь дуулахаар өрөвдөөд байна хө	소식을 들으니 불쌍하다 허
Арын ногоо алаглаад байна хө	뒤의 풀은 화려하다 허
Аашийнь бодохоор өрөвдөөд байна даа хө	성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허
Жалгын ногоо жигдрээд байна	강줄기의 풀은 쭉 자랐다
Зангийн бодохоор өрөвдөөд байна даа хө	성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허

### 12. 초원의 추위(Талд Унасан Жавар, 탈드 오나승 짜와르)

자신의 무지함을 몽골 추위에 비유하여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의 노래.

Дунд зэрэг

Тал - д - ла уна - сан жа - вар бол-бол

Ташуур алдам хүйтэн жавраа ай - ай хө хө

Тан-хи - л өс - сөн намай - гаа бол-бол

Тархий нь эргэтэл загнаад яах вэ хө-оо хө-оо хө

Талд унасан жавар болбол  
 Ташуур алдам хүйтэн жавраа хө хө

Танхил өссөн намайгаа болбол  
 Тархий нь эргэтэл загнаад яах вэ хө

초원의 추위는  
 채찍을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추위다  
 허 허

귀하게 자란 나는  
 비리가 아프도록 흔내서 뭐하나 허

Ууланд унасан жавар болбол  
 Уурга алдам хүйтэн жавраа хө  
 Урьд айлын хоёр бүсгүйнь  
 Ухаан алдам хөөрхөн гэнэ хө

산의 추위는  
 오르기<sup>39</sup>를 바릴 만큼의 추위다 허  
 앞집의 두 여인은  
 정신 못 차릴 만큼의 예쁘다네 허

Арилжаа сураагүй морийгоо болбол  
 Амь нь татаад юугаа хийх вэ хө  
 Ажил сураагүй намайгаа болбол  
 Дашигж загнаад юугаа хийх вэ хө

걸음을 배우지 않았던 말은  
 입을 당겨서 뭐 하나 허  
 일을 배우지 않았던 나를  
 흔내서는 뭐 하나 허

Жорсо сураагүй морийгоо болбол

걸음을 배우지 않았던 말은

<sup>39</sup> 장대 끝에 고리가 달린 연장으로 말을 잡는데 사용하는 도구.

Жолоогий нь татаад юугаа хийх вэ хө    입을 땡겨서 뭐 하나 허  
 Зовлон үзэгүй намайгаа болбол    고생해 보지 나를  
 Зодож жанчаад юугаа хийх вэ хө    때리리 해서 뭐 하나 허

13. 팔꿈치만한 나무(Тохой Зандан Мод, 토호이 잔당 모드)

사랑하는 이에게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하는 노래.



Тохой зандан модонд бөмбөр минь    팔꿈치 높이의 나무에는 뱀비르<sup>40</sup>  
 Толгойн сүүдэр дайрна даа бөмбөр    머리 그늘이 지나간다 뱀비르  
 минь

Тоотой хоногийн үйлэнд бөмбөр минь    일정한 세월의 인생에는 뱀비르  
 Тоогүй муухай даслаа даа бөмбөр минь    너무나도 많이 정이 들었다 뱀비르

Салгаа зандан модонд бөмбөр минь    갈라진 나무에는 뱀비르  
 Сарны туяа туслаа даа бөмбөр минь    달빛이 비친다 뱀비르  
 Сайны ерөөл байвал даа бөмбөр минь    좋은 인연이 있다면 뱀비르  
 Сардаа ганцхан ч ямайдаа бөмбө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어디야 뱀비르  
 минь

Үзүүр зандан модонд бөмбөр минь    뽕속한 나무에는 뱀비르  
 Үүлний сүүдэр дайрна даа бөмбөр    구름의 그늘이 지나간다 뱀비르

<sup>40</sup> 무의미한 의성어.

МИНЬ

Уулзахын ерөөл байвал даа бөмбөр манал энэни яддагдэн бөмбөр

МИНЬ

Удаан түргэн чиг яамайдаа бөмбөр олоо гелддэо гелддэо бөмбөр

МИНЬ

14. 하티르(Хатир)<sup>41</sup>

부리아트(Буриад)족의 즐겁게 춤추자는 노래이자 춤곡.



Тохмын чинээ газартаа

티허르<sup>42</sup> 사이 곳에서

Тойрон байж хатарья

돌고 돌고 춤 추자

Толгойн мөнгөн гоёлоо

머리 은 장신구를

Ханчир янчир хатарья

흔들리고 춤 추자

Эргэлдэн наадья

후렴: 돌고 즐기자

Элдвээрээ зугаалья

여러모로 즐기자

Мушгиралдан наадья

손에 손잡고 뒹어져 즐기자

Мэддэгээрээ зугаалья

아는 대로 즐기자

<sup>41</sup> 부리아트족의 춤사위 중에 구음(의미 없음).<sup>42</sup> 발안장을 댄 상태의 같이.

Дэлгрий чинээ газаргаа	터허르의 규모 곳에서
Дэвсэн байж хатарья	갈아 놓고 춤 추자
Дээлийн мөнгөн шигширгээ	테엘은 장식을
Ханчир янчир хатарья	소리내며 춤 추자
Дахилт	[후렴]

Навтгар модны орой дээр	낮은 나무 위에는
Паян хөхөө дошгодноо	여든개의 뿔꾸기가 운다
Наран гарахын үедээ	해가 뜰 쯤에는
Наадам зугаа дуусна	축제가 끝나간다
Дахилт	[후렴]

15. 호트고이드<sup>43</sup>의 망아지(Хотгой дын Унага, 호트고이덕 오나가)

6살의 어린이가 새끼 망아지를 타고 자랑하며 부르는 노래.

Улаан

Хо - т-гой-дын унага нь (ээ) Хонгор халзан зүс - тэй дээ

Хо-рин тавны найран дээр Харийн хошуунд түрүүлсэн юм

- |                             |                |
|-----------------------------|----------------|
| 1. Хотгой дын унага нь (ээ) | 1. 호트고이드의 망아지는 |
| Хонгор халзан зүстэй дээ    | 귀여운 솜털머리 모양이라네 |
| Хорин тавны найран дээр     | 스물다섯 잔치에는      |
| Харийн хошуунд түрүүлсэн юм | 남의 고향에서 우승했네   |

<sup>43</sup> 지명(地名).

- |                                                                                                                      |                                                                |
|----------------------------------------------------------------------------------------------------------------------|----------------------------------------------------------------|
| 2. Дааганаасаа давхиатай<br>Унаганаасаа уяатай<br>Далай даяны даншиг дээр<br>Дархан цолыг авсан юм                   | 2. 두 살부터 달렸다<br>망아지부터 묶어 있었다<br>달라이 다양 단식 나담에서<br>챔피언이 되었다     |
| 3. Алтан зуузай жолоогий нь (ээ)<br>Амыг нь тааруулж татаарай<br>Ар л сайхан зоогий нь (ээ)<br>Аяар аяар гуяаарай    | 3. 금으로 만든 재갈 (에에)<br>입을 맞추고 땡겨라<br>똥 허리를 (에에)<br>천천히 천천히 때려라   |
| 4. Мөнгөл зуузай жолоогий нь (ээ)<br>Мөрий нь дагуулж татаарай<br>Мөлгөр сайхан зоогий нь (ээ)<br>Аяар аяар гуяаарай | 4. 은으로 만든 재갈 (에에)<br>어깨선으로 땡겨라<br>매끈한 허벅지를 (에에)<br>천천히 천천히 때려라 |

16. 설날(Цагаан Сарын Шинийн Нэгэн, 차강 사르 귀니영 내경)

여인을 그리는 노래로 설날이 왔는데 사랑하는 양진동람이란 여인에게 고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심리적 갈등을 묘사한 노래.

Дунд зэрэг

Ца-гаа - н са-ры - н ши - нийн нэ - гэн бо-д - оод  
ирэхэд ээ хө өө хө өө Ца-гаа - н эс - гий  
гад-наа дэв-сээд тэнгэр мөргөв өө хө өө хө өө  
бурхандаа

Цагаан сарын шинийн нэгэн болоод ирэхэд (ээ) хө



Цагаан эсгий гаднаа дэвсээд тэнгэр бурхандаа мөргөв өө хө  
Цагаан идээгээр тавгаа дүүргээд амтанд нь болж суушаа хө  
Царайлаг төрсөн Янжиндуламдаа санасныгаа хэлнэ (ээ) хө

Хаврын сарын шинийн нэгэн болоод ирэхэд (ээ) хө  
Ханан эсгий гаднаа дэвсээд хангай дэлхий дээ мөргөв өө хө  
Хай лмаг тосоор саваа дүүргээд амтанд нь болж суунаа хө  
Хай ртай төрсөн Янжиндуламдаа санасныгаа хэлнэ дээ хө

Хоёр сарын ишнийн нэгэн болоод ирэхэд (ээ) хө  
Хонин эсгий гаднаа дэвсээд хорвоо ертөнций дээ мөргөв өө хө  
Хоормог айргаар хувингаа дүүргээд амтанд нь болж суушаа хө  
Хөөрхөн төрсөн Янжиндуламдаа санасныгаа хэлнэ дээ хө

Арван сарын шинийн нэгэн болоод ирэхэд хө  
Ахрын эсгий гаднаа дэвсээд агаар тэнгэртээ мөргөв өө хө  
Ааруул идээгээр тавгаа дүүргээд амтанд нь болж суунаа хө  
Амгалан төрсөн Янжиндуламдаа санасныгаа хэлнэ дээ хө

(Радионийн алтан фондиоос УГЖ дуучин Чулуунчимэгийн дуулснаар  
бичиг)

Шалар оонде (э) х  
Хэншэ яамол байе жалг хэсэ бурчидеэеэ элхэнэ х  
Южэеомоо грут гадхэ хэсэ мэсэ бооо ааи эдэ х  
Жалсэин яанжиндэламэеэ сэсэган байсэ элхэнэ (э) 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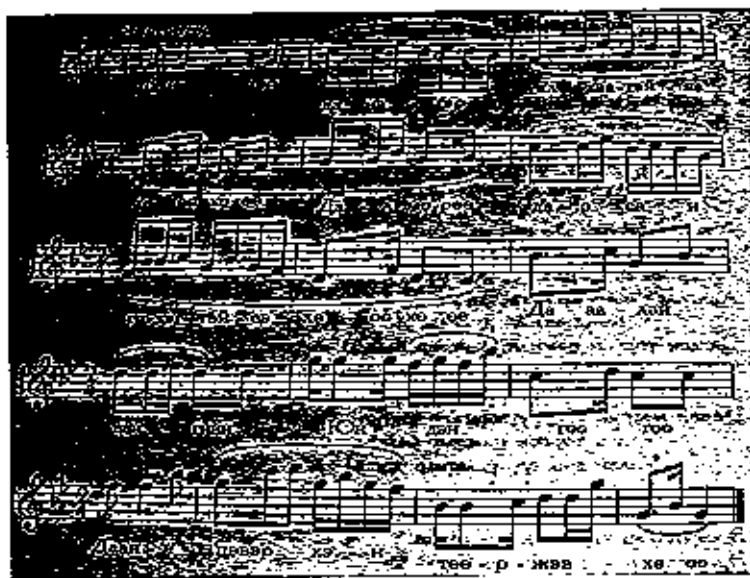
Бмэи китэй оонде (э) х  
Бэй яамол байе жалгэ эсээнэеэ элхэнэ х  
Бэтерэ мэсэ бэйсэ гэсэ грутэ гадхэ бэйсэ бооо ааи эдэ х  
Сэсэганэ яанжиндэламэеэ сэсэган байсэ элхэнэ х

두 번째 달의 첫날이 오는데 (에) 허  
 양털 양모를 밖에 깔고 자연에게 절한다 허  
 낙타주 마유주를 그릇 가득히 넣어 맛을 보고 앉아 있다 허  
 예쁘게 태어난 양진돌람에게 생각한 바를 말한다 (에) 허

시월의 첫날이 오는데 허  
 짧은 양모를 밖에 깔고 하늘에게 절한다 허  
 유제품으로 그릇 가득히 하고 맛을 보고 앉아 있다 허  
 평온하게 생긴 양진돌람에게 생각한 바를 말한다 (에) 허

### 17. 윙덴 거거(Юндэн Гөгөө)

몽골에 전하는 설화 노래로 멋진 남자 윙등거거의 사랑 이야기.



1. Юндэнг магтсан дуунаас:  
 Данагар данагар алхаатайяа хө  
 Дал мөрөө дарсан гэээгтэйгээ хө

1. 윙덴을 찬양하는 노래 부분  
 다나가르 다나가르 걸음이 있다 허  
 어께 넘어 머리를 뺐다 허

Далай вангийн Юндэн гөөгөө Даагч цэвэрхэн төржээ хө	달라이 황의 응덴 거거 너무나도 잘생기고 태어났다 허
Гунагар гунагар алхаатайяа хө Гуривар дарсан гэхэгтэйсө хө Гунхсан сайхан Юндэн гөөгөө Гуниг ч үгүй цэвэрхэн төржээ хө	고나가르 고나가르 진음이 있다 허 세 갈래로 탄 머리가 있다 허 뒤태가 예쁜 응덴 거거 고심 없이 잘생기고 태어났다 허
Сэмхэн сэмхэн алхаатайяа хө Шилээ дарсан гэхэгтэйсө хө Шинэ сайхан Юндэн гөөгөө Сургэй сай хан төржээ хө	조용 조용 걸음이 있다 허 목뒤를 넘어 머리를 뚫다 허 새로운 멋진 응덴 거거 맛있게 잘 태어났다 허
2. Сийриймаагийн дуунаас: Хүзүүнээс нь жавар орно гээд Хөвөнтэй дүүдүү хийгээд өгсөн юмаа Хүнээс илүү хайрлана гээд Хүдрийн заарьш шингээсэн юмаа хө	2 시리마의 노래 부분에서 목에서 추웁까봐 숨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남보다 더 사랑한다고 사랑을 녹였다 허
Заамаар нь жавар орно гээд Захтай дүүдүү хийгээд өгсөн юмаа Заксар үгүй хаширн гээд Заарын үгэр шингээсэн юмаа хө	앞쪽에서 추웁까봐 카라 있는 옷을 만들어 주었다 허 거라 없이 사귀다고 사랑의 냄새가 배어있다 허
Энгэрээр нь жавар орно гээд хө Элэвчин дүүдүү хийсэн юмаа хө Эмгэн болглоо ханилца гэж хө Энгүй хайраа зориулсан юмаа хө	가슴에서 추웁까봐 허 이중으로 있는 옷을 만들어 주었다 허 할머니 될 때까지 산다고 허 둘도 없는 사람을 위해 했다 허
Хорчин хошууны Да ван чинь	허르칭 아이막의 다왕 <sup>44</sup> 은

<sup>44</sup> 인명.

Хойгуур нь морилох нь юуных вэ хө	뒤쪽 곳에 오셨다네 허
Хол явсан Юндэн гөөгөө минь	멀리 간 응덴 거거는
Хонгортоо ирэх нь яагаа вэ хө	연연에게 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허
Арлын хошууны Да ван чинь	북 아이바의 다왕 <sup>45</sup> 은
Авахаар ирдэг нь юуных вэ хө	테리러 온 것은 무엇인가 허
Алсад явсан Юндэн гөөгөө минь	멀리 간 응덴 거거는
Ацаглаад ирэх нь яагаа вэ хө	먼저 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허
3. Юндэнгийн дуунаас:	3. 응덴 노래 부분에서
Цагаан торгон цамцгыг бай саар	흰색 실크 셔츠가 있는데도
байтал	
Цагаан чинчүү цамцаар юугаа	흰색 셔츠로 무엇을 하나 허
хийх вэ хө	
Царай лаг Сий рий маагаар бай саар	예쁜 시리마가 있는데도
бай тал	
Царай муутай Цэрвүүмаагаар юугаа	못생긴 제르부마로 무엇을 하나 허
хийх вэ хө	
Улаан торгон цамцгыг бай саар	빨간 실크 셔츠가 있는데도
бай тал	
Улаан минчүү цамцаар юугаа	빨간 셔츠로 무엇을 하나 허
хийх вэ хө	
Ухаалаг Сий рий маагаар байсаар	똑똑한 시리마가 있는데도
байтал даа	
Удам муутай Цэрвүүмаагаар юугаа	조상이 나쁜 제르부마로 무엇을 하나 허
хийх вэ хө	
Эрээлэнхэн харагдах уул нь хө	화려하게 보이는 산은 허
Эргэн тойрондоо чимэгтэй дэ хө	주변을 장식한다 허
Энхрий хайртай Сий рий маа минь	사랑하는 시리마는
Элэгсэг дүүгээс минь юуны өөр вэ хө	친한 동생과는 무엇이 다른가 허

<sup>45</sup> 인명.

Алаглан харагдах уули нь хө	화려하게 보이는 산은 허
Арын хөндгүдөө чимэгтэй дээ хө	빛산을 장식한다 허
Амраг хайртай Сийрий маа минь	사랑하는 시리미는
Ачтай эгчээс минь юуны өөр өз хө	친한 누나와는 무엇이 다른가 허